**회의록**

<우리 조는 남들과는 달라야 한다>

20190702 주제회의

**Bad House 리뷰**

Bad house : 팀원 박종익이 구상했던 아이디어

: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집 주변의 나쁜 정보(ex, 건설현장, 소음지수, 미세먼지 등) 지수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문제점 및 보충점**

1. 파이썬으로 할 것이다

... 모바일에는 약하다

2. 데이터의 부재

1) 네이버나 구글에서 공사와 같은 데이터를 가져온다 ... but API적인 문제가 예상

-> 불확실하다

2) 공사소음 같은 경우 민원 데이터를 이용해 조금 더 구체화는 가능하다!

3) 아동 범죄율 여성 범죄율 현재 이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

3. 시각화

몇가지 factor를 만들거나 PCA등을 이용해 Radar plot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정보 지수를 용해 3차원 시각화를 하는 방법도 존재할 것이다.

**단점**

머신러닝 딥러닝 등과 같은 기술력과의 연계… 적어도 각자 삶의 만족도(개인 데이터) 정도는 예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But! 그냥 빅데이터과정이다. 그래서 굳이 러닝과정까지 생각은 해야할까??

**추가적으로 생각해야하는 것들**

**주제 선정에 고려할점**

1.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문제점을 구체화 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2. 퍼포먼스 적인 요소도 생각을 해야한다. Why?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확실히 파악하기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을 것이고, 이슈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다.

**주제 :**

1. 행사가 있었을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만족도 예측

러닝적인 요소 : SNS

데이터적인 구체화가 필요하다!

1. 공항 분실물 예측 (300억) … 정부과제
2. 음양오행 기반 음식사진을 보고 음의 기운인지, 양의 기운인지 알려주는 것